FX Market Daily

2024-04-11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70원 상승한 1,354.90원에 마감

9일 환율은 전일대비 1.70원 상승한 1,354.90원에 마감했다.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20원 하락한 1,353.00원에 개장했다.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개장가 수준에서 횡보했다. 이후 결제수요 등에 1,350원 중반을 회복했으나 CPI 경계감에 1,355원을 고점으로 상승폭은 제한되었고 1,354.90원에 마감했다. 장중 변동 폭은 2.70원이었다.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891.93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

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달러	1353.00	1355.60	1352.90	1354.90	1354.40
엔화	892.56	893.22	884.16	884.32	-
유로화	1470.71	1472.23	1453.40	1455.24	-
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: 달러는 익일 06:00(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:00)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44	-6	-13.73	-27.73
결제환율(수입)	-1.1	-5.11	-11.95	-24.32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

금일 전망

미 CPI 서프라이즈에...1,36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354.90) 대비 9.35원 상승한 1,362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금일 환율은 미 CPI가 촉발한 강달러 충격에 상승이 예상된다. 미국 3월 CPI는 전년대비 3.5% 상승하여 시장 예상치(3.4%)를 상회했고 지난해 9월(3.7%)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 core CPI도 전년대비 3.8% 상승하며 예상치(3.7%)를 뛰어넘었다. 1월, 2월에 이어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자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인하 지연에 무게를 뒀다.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1%로 하루 전(41.6%)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. 미국 2년, 10년 국채금리는 모두 20bp 전후로 급등했고, 달러 인덱스는 105.199로 전장 서울 환시 마감 무렵 대비 1% 급등했다. 이로 인해 간밤 역외 시장에서 달러-원 환율은 1,360원을 상회, 외환시장 2차 저항선으로 주목하고 있던 레벨을 뛰어넘었고 금일 환율은 역내외 달러 매수 강세에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. 또한, 위험선호 심리 위축에 뉴욕 증시가 1% 가까이 급락하여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환율 상승 분위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.
다만, 당국 경계감과 수출 네고 등 수급부담은 상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

1358.00 ~ 1368.33 원

체크포인트

-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3069.15 억원
-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9.35원↑
- ■ 美 다우지수 : 38461.51, -422.16p(-1.09%)
-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9.97 억달러
-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004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